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정치권 '구애' 불심 몸살

지난 11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민주당 김중권 대표의 비서실장 이호용 의원은 총무원장 정대스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다. 9일 영천 은해사에서 있었던 '호국인민기원 및 경북지방경찰청 경승발대식'에 앞서 정대스님과 민주당 김중권 대표,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이 산내 백련암 담소를 나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집권하면 회대의 보복정치가 난무할 것이라고 말했던 정대스님이 최근 김중권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 발언이 소신이었음을 재확인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것이 최근이었다.

이 비서실장은 "장전형 부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말을 전하며 자기의 생각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큰 누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그 자리에서는 이회창 총재의 '이 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로 정대스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내년 봄의 지방선거, 이어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은 벌써 비례 움직이고 있다. 요즘 어지간한 불교행사에는 정치인 한두명의 축하 순서가 빠지지 않는다. 일대감치 공을 틀어주는 것이다. 정치 행사에 스님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낯설지 않다.

정치권 사장에 밝은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내년 대선에의 향배를 좌우할 주요변수 가운데 하나가 영남권 지역의 민심이며, 영남권 민심의 한 가운데는 불교가 있다고 본다



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예비후보들이 불교계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이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불교 공략도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불교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대스님의 발언 왜곡도 한 예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권력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책하고 있다. 종교를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의 속셈을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가인은 왕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왕을 가까이 하는 사문은 모든 세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공양받지 못한다." <정법염처경>

"스님들이 화를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여당의 한 유력인사가 초청한 만찬장에서 불교계의 중진스님들이 경장적으로 야부성 발언을 해 눈이 뜨거웠다"며 "스님들이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성운(취재 1부 차장)

국립공원 내 사찰 오수처리시설 환경부, 설치비 60% 지원

친환경적 방생문화 캠페인도 전개

환경부가 국립공원내 221개 사찰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의 60%를 국고지원하고, 조계종 등과 함께 친환경적인 방생문화 캠페인도 벌이기로 하는 등 사찰환경 개선에 나섰다. (관련 기사 3면)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은 9일 과천 환경부 회의실에서 국립공원내 사찰 오수 및 환경친화적 방생문화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국립공원내 건축물 연면적 800㎡ 미만 221개 사찰의 국고(국립공원사업비지원) 비율을 국고 60%, 사찰부담 40%로 결정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시설이 미비한 백담사 백암사 내소사 부석사 화엄사 망월사 등 6개 사찰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계획서를 이달말까지 지자체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해서는 5월부터 사찰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와 국고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 합동으로 사찰계곡의 오수특성조사를 실시,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각 기관의 관련자료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 환경부는 수질보전국에서 연간 50억원을 확보,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단독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의 교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소규모 사찰까지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조계종과 환경부는 춘파일을 전후해 종단협의회 및 문화관광부의 협조로 방생문화개선 활동캠페인 등을 펼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천진 동자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특도한(?) 동자승들이 연등을 들고 타고난 그대로의 웃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 말씀과 같은 세상을 열어주는 일, 어른들의 몫이 아닌 어린이들의 몫이 아닐까.

봉축열차 '달린다'

5호선 6월말까지... 60만명 승차 예상

봉축테마열차 개관식이 9일 지하철 5호선 고덕차량기지서 열렸다. 개관식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성초 대장사, 천태종 총무부장 은광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회종 총무원장 남정스님과 흥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봉축테마열차는 당초 4량에서 5량으로 늘었으며, 셋째 칸부터 일곱 칸까지 '소리와 색으로의 공헌' '나를 찾아서' '현실의 버림목-불교' '인연 잇기' '연꽃세상'의 주제로 꾸몄다. 열차 외벽은 단청 문양과 만다라 문양으로 장식했다.

개관식에서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은 양산스님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평화와 평

등을 기원하고, 일상에 기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축테마열차는 6월 30일까지 82일 동안 평일에는 4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6회 운행한다. 도시철도공사는 6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 11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一心佛院
 각종 불사/ 불교 용품 일괄
 大佛, 小佛, 福銀, 香燭, 檀香, 檀漆
 02-725-2030 / 725-2040

- ### 장군 죽비
- ◇조계종을 10월부터 법계 제도 시행기로 승가의 위의를 살리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22면)
 - ◇한국에서 버림받은 장애아 애덤 킹, 2001프로야구 경기서 시구, 인류의 양심이 한국사회의 후진성에 던진 돌팔매. (8면)
 - ◇옛날 옛적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기렸을까?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봉축 행사 변천사를 살핀다. (9면)
 -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 청원암 통과 도로 개설 추진, 부처님의 땅까지 우습게 여기는 권위적 행정권의주의에 장군죽비를. (22면)

김태복 장군 구명 나선다

정대 스님, 불교단체 대표자 면담서 강조

군법당 건립 시주금을 뇌물수수료로 적용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태복 장군 사건에 대해 조계종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2일 김태복장군 사건과 관련해 불교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이번 사건이 당연히 좋게 끝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려가 된다"고 전제한 뒤 "합리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대법원, 국방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또 불교단체 대표자들이 요구한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에 성사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며 "이번 사건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총무원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종교회합 차원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면담에 앞서 불교단체 대표자들은 "군법당이 상고한 것은 시주금을 뇌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군법당들의 심신 저하를 막고 군포도 확실함을 위해 원만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대중 포교사단 부단장, 박광서 청어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장,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장, 신회권 불교정보센터 대표, 어연승 중앙사도회 조지부장 등 불교단체 대표자 6명이 참석했다. 김두식 기자

"선암사 소송 적극 대응" 조계종 중회 재정분과위

조계종 중앙중회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 자승는 12일 총회사무처 회의실에서 24차 회의를 열고 부산 선암사 경내지 수용에 대한 긴급 대책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분과위는 전통사찰의 토지가 강제 수용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향후 집행부로부터 선암사가

지역불교 문화기행

남도 천년고찰의 봄내음

4월: 송광사 선암사 흥국사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가 된 조계산의 송광사와 선암사는 연봉과 화, 폭포, 개나리 등 봄꽃들로 꽃대궐을 이루고 있습니다. 4월에는 봄꽃내음이 물씬 풍기는 남도의 천년고찰을 찾아갑시다.

송보종찰 송광사에서는 편편히 내려온 16조사 스님들의 기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경내 입구 원연에 자리잡고 있는 성보박물관에서는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과 고려 고종대석(국보 제43호) 등 진귀한 국보급 문화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암사가 중창한 역사깊은 대가람 선암사에서는 반원형의 무지가 다리 승선교로 물 400미터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을 바라보며 온갖 번뇌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개관한 성보박물관 역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빛나무늬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흥국사를 함께해드립니다.

- ◇출발: 4월 21일(토) 밤10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비: 5만5천원(초식·종사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지정회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후원: (주)한화여행

일시: 2001년 4월 22일 (음. 3월 29일 오후 1시)

장소: 경남 사천시 백천동 112번지 외룡산 백천사

- 1부 봉불식 대법회 법요식
- 2부 연예인 공연

(공연 안예) 이상재, 주연이, 김명일, 최민우, 이복현

- ◇중명법사: 총무원 원장 정대 큰스님
- ◇중명법사: 불국사 주지 성태 큰스님
- ◇주: 석굴암 주지 홍상 큰스님
- ◇약천사 회주: 해인 큰스님

문의전화: 055)834-4010, 835-9443, 833-0162

◇백천사 오시는 길

세계최대 약사외불(몸속법당) 봉불식 및 큰스님 초청법회